

예수 승천 대축일 (홍보의 날)

기도서 305 편(A해)

제1독서 : 사 도 1, 1-11
제2독서 : 에 페 1, 17-23
복 음 : 마 태 28, 16-20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홍보의 날에

성 태 수 신부

홍보의 날은 매스 미디어(대중 전달 수단)를 통한 교회의 여러가지 사도적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신자들에게 매스컴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이 목적으로 기도하며 헌금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설정된 날이다.

매스 미디어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와 전파매체(라디오, T.V, 영화 등)로 나뉘어지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여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정신상태를 깊게 지배하고 있다.

교회는 매스 미디어가 인류사회 및 인간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도록 관심을 가져오고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산업사회 안에서 매스 미디어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실정에 있지만 한편으로 매스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과 선택의 여지를 없애고 사람들을 획일화 내지는 비인간화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대의 매스 미디어가 창조주를 거슬러 인류에게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모적인 심정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19-20)하신 말씀을 묵상한다. 교회가 예수 승천 대축일을 홍보의 날로 정한 것은 매스 미디어가 현대 선교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홍보주일을 맞아 우리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면

첫째로, 가톨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 등)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읽어야 하며 교회 서적들을 가까이 하고 이웃에게도 권장해야 한다.

둘째로, 가톨릭 프로(T.V, 라디오, 영화 등)를 이웃에게 권유하여 함께 보고 듣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T.V, 라디오 프로나, 영화, 신문기사 등에 대하여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가톨릭적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비판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홍보국장)



동산 본당 신설

—초대교회를 살자

전주교구 41번째 본당이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교구 제 1호 본당인 동산(東山)교회가 지난 5월 10일자로 설립되었다.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신설된 동산 본당은, 건물로 상징되는 외형적인 교회 모습으로는, 30평 남짓한 성당(옛 공소 강당)과 전세로 얻은 사제관이 그 전부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600여 하느님 백성과 그들을 사목할 사제가 있으니, 이야말로 참교회가 아닐 수 없다. 200주년의 깊은 의미를 이 땅에 밝히고자 하는 이 때에, 통상적인 고정 관념을 깨뜨린 새로운 시도의 본당 설정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요즈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함께 지내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갖고,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여 하느님을 찬양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성부·성자·성령이 하나이듯이 함께 지내고, 서로가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나눔이 있었으니, 어찌 그 공동체에 축복이 없으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고,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 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 갔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한다.

한국의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우리는 끈끈한 사랑의 나눔을 볼 수 있다. 하나뿐인 생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도들은 사체를 감쌌고, 사체는 신도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았던가! 전통사회의 오랜 인습의 신분을 뛰어넘은 형제애도 그 하나다. 이러한 것들이 200년 역사를 있게한 원동력임을 우리는 안다.

함께 지내며 서로 나눔 때, 주님은 백배로 갚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 본당의 밝은 내일을 전망하는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활일이 너무 많아 수고하겠오

제18차 세계 홍보의 날

신앙과 문화의  
교량역할을 하는 사회 홍보

말씀의 우물에서

사회홍보매체가 문화를 촉진시키고 심오한 신앙을 수  
수히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회의론이 대두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회의론에 동조하지 않고, 현대  
의 과학기술시대에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독특한 기  
회를 쌍수로 환영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작품, 영화, 출판물 등은 수 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지  
닌 작품들이 널리 교류될 때 국제적인 차원에서조차 진정  
한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일치와 발전No.  
49, 51, 53, 94).

홍보수단이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문화를 퇴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가지 경향  
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부한 작품들이  
거래됨으로써 문화적인 감각을 저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문화를 지배하려드는 개인  
들의 기도(企圖)가 그것이다.

매스 미디어가 "복음과 문화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의 드라마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  
은 사실이다. 교회의 모든 성원들과 거의 모든 평신도들  
은 자신의 특별한 카리스마를 통해 이러한 분열을 치유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1984년도 세계 홍보의 날  
주제의 본질적인 요점인 것이다.

신앙과 문화의 이러한 분열은 "인쇄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의 상호 반감이나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가 사용하는 수단의 상호반목에서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질문해 볼 만한 것이다. 사회홍보수단이  
문화나 종교에 참으로 충실히 관여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이러한 적대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었을까? 미디어와  
문화와 신앙, 이 셋은 모두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신앙이 만민에게 선포되고 있지는 않으며, 문화는 내면  
적인 깊이를 상실하고 있고, 사회홍보는 스스로를 단순히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이해나 목적에만 국한시켜왔다.

따라서 미디어가 신앙과 문화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  
으리라는 희망은 인류 공동체의 발자취와 더불어 사라져  
가고 있다.

복음선교가 매스 미디어의 사도적에 대한 토대일진대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신앙의 전파는 민족들의 공통적인 정제와 목표와 같은,  
종교적인 유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의 깊은 원천,  
즉 위대한 종교적인 인간성의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문학  
과 예술의 원천과 복음의 신비로운 진리를 설명해주는  
그리스도교적인 메시지의 영향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다.

이러한 새신 임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 대원들  
이 새로운 홍보과학기술에 의해 전래되는 새로운 인간  
실존의 차원에 대비하여 집중적인 새신을 위해 일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의 우수한 작품에 의해서만이  
신앙과 문화의 '상봉'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상적으로 변모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가 무엇하는 곳이지?"

유리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두 젊은이의 대화인 듯 실  
어 문을 열어 주었다.

"들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을 몇번이나 지나가면서도 용기가  
없어 들어오지 못했어요"

수줍은 듯 건네는 두 젊은이의 말이다.

일마침 "왜 수녀님들이 이런 서점을 경영 하니까"라는  
꽤나 용기있는 한 청년의 물음이 생각났다. "우리 서원은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빛내며 퍼뜨리는 장소입  
니다. 우리는 사회홍보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  
명을 행하는 수녀입니다." 그 청년에게 했던 대답을 다  
시 한번 두 젊은이에게 들려 주고 싶었다.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  
랑을 전해 줄 역할을 다 할 것을 성체 앞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들은 하루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  
들과 만나게 된다.

"찬송가 있어요" 하고 살며시 문을 밀치고 들어오는  
개신교 형제들이 많이 있다. 그들 중에는 성서와 찬송가  
를 구입하러 왔다가 갖가지 서적이나 카셋, 그림엽서 등  
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기쁨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  
왔어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때로는 고통중에 있  
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으러 오는 분들,  
시아머님을 위해서 큰 '글씨'의 성서를 구입하러 오는 착  
한 머느리 등 여러 상황에 처한 이들을 접하게 된다. 만  
나는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의  
빵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가끔은  
가장 가까운 우리네 천주교 가족들에게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미사때 꼭 필요한 기도서와 성가집만 있으면 돼."  
하며 항상 급히 달려와서 필수품(?)만 챙겨서 종종걸  
음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우리가 진강한 삶을 누리  
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음식 외에도 영양분을 섭취 하듯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  
적 영양제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여러 종류의 서적이나 카  
셋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요롭게 성장되  
어가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시도록 권  
해 드리고 싶다. 영원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매체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무마되지 않을 샘물  
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성바로로 서원)

마 기 환 안 과

원장: 전문의 마 기환  
장소: 팔달로변 불새다방  
2층  
전 화 75-2203  
한 남회(비리시타)

성 표구 화랑

각종 병풍 액자 족자 등  
(교인은 할인해 드립니다)  
75-4623  
(동부시장 앞)  
이 다마소(재원)  
전 빅토리아(영숙)



각종레저용품  
신발, 조끼, 목  
테니스 라켓,

스포츠용품 일절

프로-스펙스  
전북(백암)대리점  
양 경 자(안젤라)  
오거리 한국무선 옆  
☎ ③329 ③1443

장례 수의센터

(한복 전문)

신자들은 많이 이용 바람  
연락처 ③ 9193  
③ 0915  
주-배 바울라(망녀)

### □ 교회 간행물을 읽고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교회내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구 홍보국에서는 교회 간행물인 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 취급소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 가정에, 특히 본당의 여러 신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시야를 넓혀주고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줄 간행물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톨릭 신문: 교회소식, 교리상식, 전례, 교양 등 다양한 내용을 실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주간지입니다.

○월 구독료-1,2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2,000원 6개월 6,000원

\*경향잡지: 월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목소리 경향잡지는 오랜 전통을 지닌 잡지로서 신자라면 꼭 읽어야 할 신앙인의 교양지입니다.

○한권-1,3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3,000원 6개월-6,500원

\*생활성서: 월간, 빛을 갈망하는 이들의 참벗 생활성서는 성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한권-1,900원 ○정기 구독(선불)-1년 19,000원 6개월-9,500원

\*구독방법: 교구청 홍보국으로 직접, 또는 전화, 서신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지불-우편대체(400010-31-9026907)나 소액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시청각 자료 이용 안내

교회 홍보수단을 통한 신앙교육과 전교에 보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교구청 홍보국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성인용) - 성서·묵상용·나자렛예수·교육용·우화·전기 (아동용) - 구약성서·신약성서·동화·교리

\*영화 - 그룹대화·전기·교리교육·기록영화

\*사진말 - 나와 그룹 외 8권

\*비디오 - 성서의 영웅들(11종류)

### □ 성바오로 서원 휴일 변경

교구내에서 홍보수단을 통한 복음선교에 봉사하고 있는 전주 성바오로 서원은 월요일이 휴일이었으나 6월 둘째주부터는 일요일이 휴일입니다.

그동안 불편하셨던 신부님, 수녀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 전주교구 7위 성인 ④

### 성 한 원서 요셉(베드로)(1836~1866)

일명 '재권'으로도 불리는 한 원서는 태종 교우로 충청도 진잠에서 태어나 부모의 착한 모범을 따라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진잠(鎭岑)지방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박해로 전주 대성동으로 이사한 후에는 아무 직책없이 교회일에 충실했다. 1866년 12월 5일 한 원서는 전라 감사의 명으로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손 선지, 정 문호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친구를 통해 석방교섭을 벌이는 한편 옥에까지 찾아와 배교할 것을 간청했으나 한 원서는 "아버님, 그 말씀은 마를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고,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전주 서문밖 순정이에서 참수형을 받고 31세로 순교했다.

### 요십이(565) 김병오

좀 늦은감은 있지만 교황님 방한시 수고하신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사목방문이다.” 초청이다.로 말씀은 있었으나 적극협조 해주셔서 감사...

사제의현실참여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는 했으나 세심한 보도에 감사...

딱중사건이 있었으나 빈틈없는 경위에 감사...

### 하나회(장애자) 기금마련

### 일 일 찾 집

일 시: 6월 17일(일) 9시~21시까지

장 소: 가톨릭센터 다방

주 최: 하나회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

###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건강을 드려요

전주 중앙시장 입구

### 시 민 약 국

☎ ④ 0009 · ③ 3338

김 마 텔 로

정 엘 리 사 뱏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혼수(회갑) 옷감 | 도매상
- 복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
- 각종 손 일체
- 커튼지

### 서 울 주 단

☎ ③0453 ⑥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미 美米屋 성

☎ 全州 코아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 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 헤 겹(클라라)

(4) 순 정 이



1. 제13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회의: 3일 오후 2시, 장소-순정이사당, 대상-소년 꾸리아 간부
2.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피정: 6일 오전 9시, 장소-노송동성당, 대상-형제회 형제 자매  
지참물-수도복·기도서·성가집·묵주, 회비-1천5백원(겉집 제공)
3. 군산지구 M.E 팀장 회의: 5일, 장소-월명동 성당 사랑방
4. 군중후원회 현충일 추도미사 및 단합대회: 6일 오전 10시30분, 장소-국문교지(미사)  
치명자산(단합대회), 지참물-미사도구와 도시락
5. 제6차 레지오 단장 연수회: 9일 오후 2시~10일 오후 6시, 장소-효자동 성당  
대상-Cu, Pr 단장 전원, 회비-6천원, 준비물-성서·성가책·필기도구·모포
6. 6월 성소자 모임: 10일 오후 2시, 장소-센타, 대상-성소자 모임 회원 및 분당신부 추천자(남자)  
지참물-성서·공동체 성가집
7. 전주교구 M.E "깊은 사랑 워크-샷": 17일 오전 10시, 센타 3층 강당, 준비물-10/10 도구·미사도구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 앙)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 전화 ①7111~3
1. 견진교리 신청: 금일까지, 교리시간-5일~9일 저녁 미사후 성당, 견진-10일 공식미사중(성신강림축일)
  2. 꾸리아 옥외행사: 금일, 구이저수지(11시 미사 있음)
  3. 병자방문: 5일, 병자 있으면 분 사무실 신청
  4. 김대건 신부 영화상영: 17일 저녁미사 후  
일광관-사무실 예매, 성인-1천원·학생-5백원
  5. 벽돌 봉헌: 18,801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1,012,150원 교무금: 652,000원

(노 송 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 용 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흥 재

1. 대의원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구역장님·사도회임원·각공소회장님 꼭 참석하세요
  2. 5개공소 합동미사: 오늘 오후 3시, 왕정공소에서  
공소 신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봉사합시다: 모내기 봉사활동, 다음주 오전 8시30분  
까지(교회묘지) 앞에 집합, 참가하실 단체나 개인은  
5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신축헌금 신입합시다: 속히 신입서를 봉헌하세요
  5. 분당 울드레아: 오늘 저녁 8시
  6. 분당 학생회 임원 단합대회: 6일, 치명자산에서
  7. 차주전례: 제2조의 단례위원회, 차질없이 진행을...
  8. 예비신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에)
- 지난주 봉헌금: 403,997원 아파트: 115,600원  
교무금: 357,800원 아파트: 33,000원

(덕 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봉 회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 양 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은 예수승천 대축일: 산상미사중 분당 소풍  
왕릉휴게실 뒷산 분당에서, 새벽-저녁미사만 있음
  2. 다음주일(10일)은 성신강림 대축일입니다
  3. 까리다스 자모회 월례회: 5일 오후 2시 성당에서  
◦성심부녀회 월례회: 7일 오전 10시  
◦청년연합회 연석 임원회의: 8일 저녁미사 후
  4. 보좌신부님 구역방문: 금주부터
  5. 공소 미사안내: <전당리> 주일-1·3주일·토요일-  
2·4주일, <미산리> 주일-2·4주일·토요일-1·3주일  
6월중 밤 9시에 미사 봉헌(공소)
  6. 금주 분당청소: 청년연합회 9일 오후 3시
  7. 차주 모임안내: 요셉회, 성모회, 중·고학생회
- 지난주 봉헌금: 524,070원 교무금: 225,000원

(복 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6월은 예수성심성월: 미사후 성월바탕 21P 기도서
2.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13일 오전 10시 축하미사  
미사후 축하식(많은 기도화 협조바랍니다)
3.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4.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부녀회: 4일 10시 어머니미사 후
6. 학생회 체육대회: 다음주일(10일)  
※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1인 1도 바랍)
7. 200주년 서울행사 차비 남은돈 1020원씩 환불합니다  
17일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 판공성사 못보신 분: 17일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9. 수녀원 헌금 미수자 및 신입 안하신분들: 협조 바랍니다
10. 분당 휴무일 변경: 수요일을 월요일로

- (어머니미사 수요일 오전 10시 Pr미사 후)
11.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강기연 ③최정순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이상인 ③황정순
- 지난주 봉헌금: 135,550원 교무금: 462,750원

(서 학 동)

신부 ②8307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726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사도회 월례회-6일 저녁미사후, 자모회-5일  
오전 10시30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울드레  
아-13일 저녁미사 후
  2. 시제양성 후원: 김재열·강규선·학생회·문정숙·  
김미순·김진례·김종태(각 1주좌) 감사합니다
  3.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10일 해성학교 운동장
  4. 사목방문: 4반-5일, 2·3반-8~9일, 1반-13일
  5. 감사합니다: 온요한 제대꽃-2만원
  6. 차주전례: 독서-①박경환 ②김백근
- 지난주 봉헌금: 329,045원 교무금: 439,000원

(순 정 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누갈다 부녀회: 6월 13일 어머니미사 후
  4. 6월(수): 어머니미사-새벽 6시,  
금년 영세자 성지순례-오전 9시까지 터미날 집합
  5. 첫영성체 교리: 6월 4일 오후 5시
  6. 평신도 강론: 이강노
  7.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강원호·김영희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기도-이기호·하정희
- 지난주 봉헌금: 213,085원 교무금: 474,450원

(전 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③2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5. 성일학교 소풍: 오늘, 덕진 견지산 (아동미사 없음)
  6. 예비자교리반 안내  
수요일(지성인): 보좌신부님-오후 8시  
금요일(일반): 김세시리아 수녀님-오전 10시30분,  
토요일(학생): 임마리토사 수녀님-오후 4시30분.  
일요일(일반): 김세시리아 수녀님-오전 11시
  7. 첫영성체 교리시작: 6월 1일-29일, 월~금, 오후  
5시, 대상-주일, 대상-국민학교 3·4·5·6학년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③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③김종기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③이 훈
  9. 장우회 정기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808,700원 교무금: 678,000원

(호 자 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각 신심단체 창설 (안내): 요셉회(60대이상 남): 회  
장-김종순, 한나회(60대이상 여): 회장-탁순남,  
성모회(50대 여): 회장-이경순, 글라라회(40대 여):  
회장-김화자, 자모회(30대 여): 회장-이민희
  2. 성령세미나: 6월 9일 오후 2시~10일 오후 6시
  3. 사목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4. 로사리오의 모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5. 수요성서: (저녁 8시) 할애급기(6장~14장)
- 지난주 봉헌금: 253,080원 교무금: 155,000원